

# 淸州·淸原의 地名由來 傳説攷\*

韓 碩 洙\*\*

|            |           |
|------------|-----------|
| I. 처음에     | 2. 역사적 전설 |
| II. 분류와 논의 | 가. 風水     |
| 1. 설명적 전설  | 나. 野談     |
| 가. 音韻 變遷   | 다. 野史     |
| 나. 民間語源    | 라. 事實     |
| 다. 位置      | 3. 신앙적 전설 |
| 라. 地形      | 가. 豫言     |
| 마. 形狀      | 나. 讖言     |
|            | III. 마무리  |

## I. 처음에

주지하다시피 청주·청원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하나의 행정 단위였던 것인데 1946년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되면서 청원군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원군 지역의 일부가 청주시로 편입되었던 까닭에 청주시와 청원군은 역사적으로 보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문화권역에 속한다. 이 지역에 속한 지명에 관련된 전설 역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청주·청원을 하나로 묶어 이 지역의 지명유래에 관련된 전설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설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설명적 전설<sup>1)</sup>, 역사적 전설<sup>2)</sup>, 신앙적 전설<sup>3)</sup>이

\* 이 논문은 1998년도 중원문화연구소의 연구과제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忠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1) aetiologcal legend : 민중들이 어떻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이루어졌는가, 사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목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지리상의 특징, 자연현상, 특수한 습관, 어느 지역의 동·식물의 특수한 형상, 산이나 바위의 생김새 등을 소박한 지식으로 설명한다(장덕순 외, 1983.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42).

그것이다. 지명 전설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명유래 전설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이러한 분류법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상당수 있다. 한 지명에 관련된 전설 자료가 2개 이상이 되는 것도 있다. 필자는 이들 자료를 위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그 내용에 따라 하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논의의 방향은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지명유래 전설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분류의 기준은 무엇이며 각각의 하위분류 안에 속하는 전설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청주·청원의 지명유래 전설, 나아가 지명유래 전설이 가지는 일반적 속성과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가지는 의의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동일한 권역에 소속되어 동고동락해 온 지역민의 의식을 유추해 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명전설에는 그 지역민의 역사의식, 세계관, 인생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차용한 자료는 역사적인 자료, 이를테면 『新增東國輿地勝覽』·『擇里志』·『清州市文獻資料集』<sup>4)</sup> 등과 『地名誌』(충청북도)·『清州市誌』·『靑原郡 地名誌』 등 최근에 나온 문헌자료 및 필자가 채록한 구전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 II. 분류와 논의

지명유래 전설을 살펴보면 전설 일반이 지니는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설명적, 역사적, 신앙적 전설로 하위 분류된다. 설명적 전설은 音韻 變遷, 民間語源, 位置, 地形, 形象으로 하위 분류되고, 역사적 전설은 風水, 野談, 野史, 史實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앙적 전설에는 豫言, 讖言이 있다. 그 분류상의 기준과 관점을 따라 지명의 예를 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설명적 전설

#### 가. 音韻 變遷

- 2) historical legend : 대부분의 전설이 여기에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로부터 성립하고 성장한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사건의 설명으로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민중의 기억이나 지식에 결합되어 생기는 것이다. 野談·野史·稗史 등은 모두 역사적 전설이다(위 책, 42~43).
- 3) mythic, religious legend : 민간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讖記를 믿거나 禁忌를 敎示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위 책, 43).
- 4) 청주시, 1993.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原名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음운 변화를 일으켜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① 북대동 : 본래 짐대(幢竿)가 있어서 짐대마루(또는 진때마루)라 하였으나 그것이 변하여 卜大→福臺가 되었다고 한다.<sup>5)</sup>

② 梧根場 : 본래는 蜈蚣倉이었다고 한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곳 주민들이 한 해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 해에 바친 제물은 죽지 않고 그 옆에 큰 두꺼비와 대들보만한 지네가 죽어 있었다. 처녀를 소생시켜 물어 보니 그 두꺼비는 그 처녀가 10여년 전 장마물에 떠 내려 오는 것을 구하여 준 후 길러 왔는데 이곳까지 따라와서 지네와 싸워 함께 죽었다고 한다.<sup>6)</sup>

③ 皮盤嶺 : 光海君 10년(1618) 懷仁의 趙義濟가 상소를 올렸다가 禁府에서 곤욕을 당할 때 그 父 조동준이 고개 마루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내 아들 장할시고” 하면서 춤을 추다가 피를 쏟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두 선비가 감동하여 조노인을 업고 마루로 내려오는데 무려 아홉 번이나 피를 쏟아 그때마다 조노인을 내려 놓고 피를 닦았으므로 이 고개가 피반이고개라 불려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피반령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피반령의 皮는 ‘피(血)’의 音借라고 한다.<sup>7)</sup>

필자는 ‘짐’과 ‘점(卜)’이 혼용되어 짐대가 ‘卜臺’로 音借되었다가 語義上 ‘卜’字가 ‘福’字로 선호되어 지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오근장 이야기는 ‘지네장터형’ 전설이며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청주 한씨 始祖의 結緣譚에도 나타난다.<sup>8)</sup> 피반령 지명유래 전설에서 피를 ‘피(血)’와 연관시킨 것은 일종의 민간어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 나. 民間語源

民間語源(folk-etymology)이란 비과학적인 語源說로서 語源 俗解·民俗語源·通俗語源·民衆語源이라고도 한다.<sup>9)</sup> 여기에 속하는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金豚山<sup>10)</sup> : 신라 때 孤雲 崔致遠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sup>11)</sup>

5) 충청북도, 1987, 『地名誌』(이하 『충북지명지』로 약함), 62.

6) 청원문화원, 1997. 『地名誌』(이하 『청원지명지』로 약함), 384.

7) 『청원지명지』, 107.

8) 고소설 『韓氏報應錄』 참조.

9) 가령 ‘벼’를 경상도 방언에서 ‘나락’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尹廷琦의 『東寔錄』에는 “謂稻曰羅祿 或云 新羅廩百官 用稻代米 故云”이라고 풀이한 따위. ‘나락’이 신라의 녹으로 주던 벼가 아니라 현대어의 ‘난알’과 동계열의 말인 것으로 보인다(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3. 『國語國文學事典』, 238).

- ② 안덕별<sup>12)</sup> : 450년 전부터 安氏가 이곳에 많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sup>13)</sup>
- ③ 竹村(대머리)<sup>14)</sup> : 전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sup>15)</sup>
- ④ 백단이<sup>16)</sup> : 눈에 모를 심으면 물이 부족해서 벼와 풀이 자라지 못해 논바닥이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白畚’이라 한 것이 전이되어 ‘백단이’가 되었다고 함.<sup>17)</sup>
- ⑤ 鳳林(복숭)<sup>18)</sup> : 孝宗의 潛邸時의 君號인 鳳林을 따라 命名함.<sup>19)</sup>
- ⑥ 피박골<sup>20)</sup> : 이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박씨가 살았는데 어느날 나무를 하다가 다쳐 손에서 피가 흘러 땅에 떨어졌다. 피가 마른 뒤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났다고 해서 피박골이라고 했다 한다.<sup>21)</sup>

최치원은 新羅 沙梁部 胎生이다.<sup>22)</sup> 金豚山이 최치원의 출생지라고 하는 것은 古小說 『崔孤雲傳』에서 최치원의 출생담인 ‘地下國大賊除治型’ 설화를 附會한 것이다.<sup>23)</sup>

안덕별은 덕별(德坪, 내덕동과 우암동 사이 큰 벌판에 있는 마을)<sup>24)</sup>의 안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안’을 安氏와 관련지은 것이다. 또 봉림을 봉림대군과 연관시킨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군왕의 名字는 諱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그것으로 지명을 삼았다는 것은 그 예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분명히 牽強附會의 민간어원에 속한다. ‘백단이’, ‘피박골’도 그 유래담이 인위적인 것이어서 작위적인 민간어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 다. 位置

지리적인 위치에 의하여 명명이 된 것을 말한다. 기존의 지명이나 자연물을 기준으로 하여 지명을 붙인 것이다.

- ① 안당골·바깥당골<sup>25)</sup> : 당골(양짓말과 셋집매 중간에 있는 골짜기, 전에 이곳에

---

10) 米院面 桂院里와 基岩里 사이에 있는 해발 369m의 산.  
 11) 『청원지명지』, 20.  
 12) 內德二洞에 있는 마을 이름.  
 13) 『충북지명지』, 47.  
 14) 청주시 方西洞의 별명.  
 15) 『충북지명지』, 57.  
 16) 옥산면 虎竹里.  
 17) 『청원지명지』, 356.  
 18) 청주시 雲泉洞.  
 19) 『충북지명지』, 55.  
 20) 문의면 妙岩里.  
 21) 『청원지명지』, 221.  
 22) 『三國史記』 卷46, 「列傳」6.  
 23) 拙稿, 1989. 『최치원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참조.  
 24) 『충북지명지』, 47.

서낭당이 있었다고 함) 안과 밖에 있어서 명명됨.<sup>26)</sup>

② 방아다리<sup>27)</sup> : 淸州邑城을 빙 둘러서 垓字 못이 있었다. 읍성 북문에서 읍성 중심지인 鐵幢竿까지가 1km였고 아랫반고개(淸주대 앞, 옹기점 있던 곳, 일명 아랫방고개)까지도 1km였다. 따라서 북문은 철당간에서 반고개의 한 중간, 곧 반이 되는 지점이었다. 이 북문에서 성밖으로 나가자면 垓字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 다리가 바로 반다리였는데 그것이 와전되어 오늘날 방아다리라는 지명이 이루어졌다.<sup>28)</sup> 校西川에 놓은 다리, 斜州面(1963년 淸원군에서 淸주시에 편입)과 淸주읍과의 중간지점이 된다하여 반다리라고 하였고 五町目다리라고도 하며, 전에 이곳에 방앗간이 있었다 하여 방아다리라 하기도 한다.<sup>29)</sup>

③ 수안들<sup>30)</sup> : 수안들 서쪽에 북수(北蘆)가 있었는데 북수의 안쪽이 된다하여 수안들이라고 하였다.<sup>31)</sup>

④ 밤고개(방고개·반고개)<sup>32)</sup> : 북문 앞에 있던 반다리(방아다리)에서 윗반고개까지가 2km인데 아랫반고개 시작지점이 그 반인 1km가 되기 때문에 반고개라고 하였는데 와전되어 밤고개, 또는 방고개라고 불린다. 본격적인 큰 고개가 아닌 얇은 고개라는 뜻으로 반고개라 불렀다고도 한다.<sup>33)</sup>

‘반다리’를 ‘방아다리’로 착각하여 부른다면 이는 민간어원에 해당하고, ‘반고개’를 ‘방고개’라고 하면 이는 음운변천이며, ‘밤고개’라고 하여 밤(栗)과 연관된 지명 유래전설과 부회하면 이는 민간어원에 속한다.

#### 라. 地形

지리상의 특징에서 유래된 지명을 말한다. 이는 풍수설의 이른바 形局論에 근거를 두고 명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形象’과는 그 內包하는 바가 다르다.

① 쌍아골(쌍학골)<sup>34)</sup> : 골짜기 위에 학 두 마리가 앉아 있는 형국의 산이 있음.<sup>35)</sup>

25) 淸주시 栗陽洞.

26) 『충북지명지』, 48.

27) 淸주시 北門路.

28) 제보자 : 김근태, 당64세, 淸주시 사천동 205-1에 거주(1998. 11. 7. 필자 채록).

29) 『충북지명지』, 46.

30) 무심천 안에 있는 들.

31) 『충북지명지』, 46.

32) 淸주시 내덕동.

33) 주28)의 김근태씨 제보.

34) 淸주시 米坪洞.

35) 『충북지명지』, 58.

② 방아고개<sup>36)</sup> : 지형이 방아 같아서 붙여진 이름.<sup>37)</sup>

③ 可樂里<sup>38)</sup> : 풍수형국으로 보면 國士峰 밑의 지형이 玉女織錦形을 이루는데 이곳이 벼들의 싹트는 가락에 해당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sup>39)</sup>

④ 九龍山<sup>40)</sup> : 산의 모양이 아홉 마리의 용이 구슬을 다루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sup>41)</sup>

宇宙 萬物·萬象은 有理, 有氣하며 有像한 까닭에 外形物體에는 그 形象에 상응한 氣象과 氣運이 내재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풍수설에 있어 保局形勢와 山穴形體에 따라 이에 所應되는 精氣가 그 땅에 凝聚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形局論의 원리이다.<sup>42)</sup> 飛龍昇天, 蓮花浮水, 回龍顧祖, 金鷄抱卵, 玉女織錦, 九龍爭珠, 捲簾殿試, 草蛇吐舌, 猛虎出林 등 외형으로 지세를 직관할 수 있게 그 혈의 형체와 역량과 氣勢를 擬制 표현한<sup>43)</sup> 명칭이 있는 바 이를 지명으로 삼은 것이다.

### 마. 形象

산이나 바위 등 자연물의 생김새를 유추하여 붙인 지명을 말한다.

① 牛岩山 : 우암산은 소가 엮드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臥牛山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주장이 있다. 현재 청주대학교 학생회관 자리에는 큼직한 바위가 30~40개 가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암산 중턱에서 보면 마치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바위들을 '소바위'라고 불렀고 그래서 산 이름을 소바위산, 와우산, 또는 우암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sup>44)</sup>

② 加來山(갈미·仁景山)<sup>45)</sup> : 산의 모양이 갈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sup>46)</sup>

③ 개고개(은고개)<sup>47)</sup> : 지형이 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겨서 명명되었다.<sup>48)</sup>

36) 청주시 龍岩洞 : 洛迦洞에서 중고개로 넘어가는 고개.

37) 『충북지명지』, 56.

38) 청원군 옥산면.

39) 『청원지명지』, 362.

40) 청주시 수의동.

41) 『충북지명지』, 65.

42) 辛侑柱, 『明堂學講論』 中卷, 1982, 195~210(최창조, 1990.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39).

43) 최창조, 1990. 앞 책, 39.

44) 앞의 김근태씨 담. 그에 의하면 학생회관을 짓느라고 파낸 바위들은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학생회관 앞에 두 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45) 낭성면·葛山里·武城里·仁景里와 미원면 禾倉里的 경계에 있는 높이 528m의 산.

46) 『청원지명지』, 20.

우암산을 청주의 서남방향에서 보면 흡사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모습이고 청주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산줄기의 하나가 청주대학에서 반고개 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지금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다고 한다. 따라서 소바위에 근거하여 와우산→우암산으로 명명된 것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가진다.

## 2. 역사적 전설

### 가. 風水

풍수 지리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명명된 지명을 말한다. 이것은 또 裨補壓勝, 絶脈, 地官으로 분류된다.

#### (1) 裨補壓勝

비보압승은 풍수설에 의해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공적으로 보완하거나 惡運이 서린 地形에 대하여 인위적인 조형물로 악운을 누르고, 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 자연적으로 주어진 明堂의 地氣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명당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明堂裨補는 명당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고 명당압승은 인위적으로 악운을 누르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다.<sup>49)</sup> 여기서는 비보압승의 관념에 의해 命名된 지명을 말한다.

① 舟城<sup>50)</sup> : 청주의 풍수지리적 형국은 배가 지나가는 모양인 이른 바 行舟形이어서 주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sup>51)</sup> 그리고 龍頭寺址 鐵幢竿은 배가 떠나가지 못하게 세운 돛대라는 것이다.<sup>52)</sup>

② 北藪 : 청주의 지형이 북쪽이 험하므로 이곳에 숲을 조성하였고 수 백년 된 나무가 오리나 뻗쳐 있었다.<sup>53)</sup>

舟城은 형국론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鐵幢竿은 인위적으로 악운을 누르고자 세워진

47) 청주시 용암동. 洛迦洞에서 남일면 동막골로 넘어가는 고개.

48) 『충북지명지』, 56.

49) 村山智順은 비보의 대표적인 것으로 鎮護를 위한 풍수탑, 補虛를 위한 造山, 防殺衛護를 위한 壓勝物 등을 들고 있다(村山智順, 崔吉城 譯,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236 ; 申月均, 1989. 「韓國 風水說話의 敘事構造와 意味 分析」 (仁荷大碩士學位論文), 201).

50) 청주의 別名.

51) 청주시, 1997. 『청주시지』上, 614.

52) 在州城內 龍頭寺廢而檣在焉 高十餘丈 世傳 初設州時 用術者言 建此以表行舟之勢(『忠淸道邑誌 -문헌자료-』, 362).

53) 『충북지명지』, 55.

조형물이다. 험한 지형을 누르고자 造成된 北藪 역시 명당압승에 해당된다.

(2) 絶脈

이것은 斷脈 또는 破明堂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산의 정기를 끊어 명당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千石谷<sup>54)</sup> : 옛날 이곳에 徐千石이라는 長者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집에 수없이 찾아오는 내방자의 뒤치닥거리에 싫증이 나서 어떤 道僧에게 부탁하여 牛馬腰穴인 집 뒤의 능선을 끊었다. 그 뒤 삼 년이 못가서 그 집은 망해 버렸으며 옛날 서천석이 살던 곳이라 하여 그곳을 천석골이라고 한다.<sup>55)</sup>

② 용바위<sup>56)</sup> : 용골 서쪽에 있는 용처럼 생긴 바위. 옛날에 글방에서 글 읽던 사람들이 중을 박대해서 보냈더니 어떤 중이 찾아와서 용골이 번창하려면 용바위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용바위를 떨어내니 학 한 쌍이 날아 나와 학들에 앉았다고 한다.<sup>57)</sup>

③ 장수굴<sup>58)</sup> : 옛날 이곳에서 장수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장수가 혈을 판 구덩이라 한다.<sup>59)</sup>

④ 범절<sup>60)</sup> : 옛날에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범의 허리에 해당하는 곳에 절을 지어서 절이 없어졌다고 한다.<sup>61)</sup>

⑤ 皮盤嶺<sup>62)</sup> : 李如松이 이 고개의 穴을 끊을 때 피가 나왔다고 한다.<sup>63)</sup>

⑥ 망골<sup>64)</sup> : 왕동골에 왕가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고개의 뒤쪽을 끊으니 금송아지가 울며 나가고 왕가는 망했다고 해서 망골이라고 불려졌다.<sup>65)</sup>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패가망신을 자초한 예가 천석골의 서천석이다. 중을 박대하다가 보복을 받아 용바위는 破明堂 되었다. 임진왜란때 조선에 응원대장으로 왔던 李如

54) 청주시 사창동.

55) 『청주시지』上, 618~619.

56) 미원면 龍谷里.

57) 『청원지명지』, 63.

58) 낭성면 官井里.

59) 『청원지명지』, 29.

60) 옥산면 南村里.

61) 『청원지명지』, 357.

62) 가덕면 桂山里에서 懷仁으로 가는 고개.

63) 『청원지명지』, 107.

64) 부용면 杏山里.

65) 『청원지명지』, 274.

松은 조선의 명당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다녔다는데<sup>66)</sup> 장수굴, 피반령, 망골도 그 예다. 인간의 무지나 실수로 파명당이 되기도 한다. 명당의 위치를 모르고 지은 범절은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다.

### (3) 地官

지관은 일명 風水師, 地師 또는 風水라고도 한다. 풍수담에는 지관의 이야기가 많다. 名地官, 가짜 지관, 지관의 실수, 지관이 된 경위 등의 유형이 있다.<sup>67)</sup> 지관에 관련되어 명명된 지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① 노루명당<sup>68)</sup> :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노루가 달려와 망으로 숨겨주었더니 노루가 그 보답으로 명당을 잡아 주었고 그 후 자손이 대대로 번창했다.<sup>69)</sup>

② 帛千洞<sup>70)</sup> : 宣祖 때 명나라 지사 杜師聰이 와서 이곳에 飛鳳歸巢形의 天下大地가 있으니 비단(帛) 천(千) 동을 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sup>71)</sup>

전설에 의하면 吉地는 異人, 神人, 道僧을 비롯하여 심지어 범, 곰, 학, 사슴, 노루 등 짐승들도 알아서 선행을 하거나 복운이 있는 인간만이 그것을 占地받는다고 한다. 목숨을 구한 노루가 점지해준 곳이 노루명당이다. 중국의 전설적 名地官 두사충은 재물로 천백동의 명당을 흥정하려고 하였다.

### 나. 野談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담적 성격의 전설이 지명유래 전설이 된 경우이다.

① 無心川 : 무심천의 어원에 관해서 어원적, 역사적으로 구명하려는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나 명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up>72)</sup> 전설에서는 무심천의 지명유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sup>73)</sup>

66) 조선의 명당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다닌 인물은 이여송을 비롯하여 胡宗旦, 중국 사신, 청군 장수, 加藤淸正 등 日人으로 나타난다(申月均, 1989. 앞 글, 196~198).

67) 신월균, 1989. 앞 글, 24~25.

68) 부용면 행산리.

69) 『淸원지명지』, 274.

70) 강내면 猪山里.

71) 『淸원지명지』, 285.

72) 金眞植, 1997. 「'무심천의 어원' 고찰」 『개신어문연구』14 (개신어문학회) 외.

73) 『淸주시지』上, 613.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청주에 들러 情盡院의 한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그 뒤 이 선비가 과거에 합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들르니 그 여자는 변심하여 있었다. 이를 한탄하여 읊은 詩句 가운데 無心이란 말이 있어서 무심천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sup>74)</sup>

② 까치내 : 무심천의 하류, 곧 미호천과 무심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쪽을 까치내라고 한다.<sup>75)</sup> 다음과 같은 지명유래 전설이 있다.

경상도 상주의 荷然齋 선생은 도학자였다. 그의 제자 중에는 白丘永과 이원조가 출중했다. 이원조가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자 백구영도 스승의 만류를 듣지 않고 떠났다. 백구영은 범이 둔갑한 것이었으며 이원조에게 원수를 갚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원조는 청주 합수머리 주막에서 심하게 앓게 되었다. 누가 흰 까치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여 냇가에 미끼를 놓았더니 한 마리가 잡혔는데 갑자기 큰 범이 나타나 물고 가버렸다. 이원조가 잠을 자는 사이 백구영으로 둔갑했던 범이 왔으나 하연재가 현몽으로 계시한 포수의 총에 맞아 죽었고, 이원조는 무사였으며 건강을 회복하여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흰 까치가 나타났던 합수머리를 그때부터 까치내라고 불렀다 한다.<sup>76)</sup>

③ 용갯들<sup>77)</sup> : 지금의 방서동 부근에 나말·여초에 韓蘭이란 이가 살았다. 그가 미개척 지역이었던 이곳을 개간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꿈에 황룡이 나타나서 자기가 승천하려는데 근처에 있는 흑룡이 방해하니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이튿날 황룡의 말대로 부근에 있는 沼에 가 보니 雷聲霹靂 속에 두 마리의 용이 싸움을 시작하였다. 韓蘭은 “황룡 잘한다”고 큰 소리로 응원하였더니 한참 뒤 흑룡이 죽고 황룡이 이겨 승천하였다. 그날 밤 꿈에 황룡이 나타나 도와주어 고맙다고 치사하고 들을 개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부터 폭우가 종일 쏟아지더니 별창하는 물

74) 그런데 정작 그 선비가 지었다는 시는 전하지 않고 있다. 고려때 鄭以吾는 情盡院을 두고 “人事無涯宇宙間 南來北去幾時閑 此橋不合名情盡 又逐歸雲到舊山”이란 시를 지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淸州 條). 이 시의 내용이 자못 처연한데 혹 이 시를 두고 추측한 것이 아닌가 한다.

75) 김진식, 1997. 「‘까치내’의 語源」 『어문연구』29 (어문연구회).  
필자가 까치내를 여러 번 답사했는데 그곳 합수머리 부근에 먹이가 많아서인지 까마귀와 까치가 항상 많이 모여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까치가 항상 많이 모여든다 하여 까치내로 명명되었거나, 큰 내인 미호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내라는 의미로 까치내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76) 『청주지지』上, 626~627.

77) 방서동 앞들.

이 늪과 잡초로 무성하던 황무지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상류에서 떠 내려 온 기름진 흙이 덮여졌다. 이 들이 용의 힘으로 개척되었다고 하여 용개(龍開)들이라고 불렀다 한다.<sup>78)</sup>

④ 花塘<sup>79)</sup> : 고종 3년에 이용준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의 꿈에 마을 앞 연못에 연꽃이 만발하고 한 노옹이 신기한 현몽을 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으므로 마을의 喜慶이라 하여 迂山이라는 본래 이름을 화당이라고 개칭하였다.<sup>80)</sup>

⑤ 상봉재<sup>81)</sup> : 이인좌의 난(1728년) 때 난군에게 죽은 청주 군관 洪霖에게는 해월이라는 애첩이 있었다. 그녀는 유복자를 낳았는데 산성 안의 보국사 주지가 이 아이는 1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절에서 데리고 키우면 延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러 오되 성황당 고개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한 번은 정한 시간에 주지 스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자 약속을 잊고 성황당 고개를 넘고 말았다. 그 시간에 아들은 못에 失足死하였고 사흘 뒤에 해월도 홍림의 무덤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성황당고개를 상봉고개라고 불렀다 한다.<sup>82)</sup>

⑥ 兵馬山<sup>83)</sup> : 신라 최치원이 이곳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sup>84)</sup>

⑦ 매봉재<sup>85)</sup> : 옛날 대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이 산봉우리가 매가 앉을 만큼 남았었다고 한다.<sup>86)</sup>

⑧ 천냥구멍이(구렁개)<sup>87)</sup> : 내의 방향을 돌리려고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하는데 품삯이 천냥이 넘어도 내의 방향을 돌리지 못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sup>88)</sup>

⑨ 용물구멍이<sup>89)</sup> : 옛날 이곳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한다.<sup>90)</sup>

⑩ 장자늪<sup>91)</sup> : 옛날 이곳에 한 長者가 살았었는데 무척 인색하였다. 어느 날 乞粒

78) 『청주시지』上, 624.

79) 남일면 화당리.

80) 『청원지명지』, 136~137.

81) 청주시 산성동 것대(居竹, 炬叱臺, 城內 남쪽에 있는 마을)에서 명암동 중봉재로 가는 고개.

82) 『청주시지』上, 619~620.

83) 치마대라고도 한다. 강외면 正中里와 上鳳里 사이에 있는 162m의 산.

84) 『청원지명지』, 21.

85) 강외면 虎溪里.

86) 『청원지명지』, 310.

87) 옥산면 歡喜里.

88) 『청원지명지』, 342.

89) 청주시 용암동.

90) 『충북지명지』, 56.

91) 梧倉面 新坪里, 薪들(薪坪이 新坪으로 바뀜) 앞 들.

청주시 신촌동(구 강내면 신촌동)에도 같은 내용의 전설과 관련된 '장자늪'이 이 있다(『청주시지』上, 625~626).

하는 중이 왔는데 장자가 자루에 쇠뿔을 퍼담아 주며 모욕하였다. 착한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 담아 주자 그 스님은 아무 날 이 닥에 큰 변이 날 것이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부모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그 날이 되어 며느리가 부모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폭우와 함께 벼락이 쳐서 장자네 집은 폭삭 함몰하고 말았다. 그 소리가 하도 처참하여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石佛이 되고 말았고 장자의 집터는 늪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한다.<sup>92)</sup>

⑪ 九女城(謳羅山城)<sup>93)</sup> : 한 홀어머니가 딸 아홉과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장사였다. 그런데 이들 자식들은 생사를 건 내기하기를 좋아하였다. 한 번은 딸 아홉은 성을 쌓고 아들은 서울을 다녀오되 누가 먼저 마치느냐를 두고 생사를 건 내기를 하였다. 딸들이 성을 먼저 쌓을 것 같자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팔죽을 끓여서 딸들에게 주었다. 뜨거운 팔죽을 입으로 불어 식히며 먹는 동안에 아들은 도착하였고 내기에 진 딸들은 쌓은 성 위에 올라가 투신하여 죽었으며 어머니가 승부를 바꾼 사실을 안 아들은 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고 한다.<sup>94)</sup>

⑫ 九土里<sup>95)</sup> : 옛날 이곳에서 진사 아홉 명이 났다고도 하고 한 집안에서 선비가 아홉 명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sup>96)</sup>

⑬ 실바위(쉽바위)<sup>97)</sup> : 범바골 앞 논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옛날에 범이 쉬어 갔다고 한다.<sup>98)</sup>

⑭ 당고개<sup>99)</sup> : 옛날 이 고개마루 좌우에 咸씨와 元씨가 각각 客房을 차리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온 몸이 腫氣로 가득한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와 목고 가게 해 줄 것을 애걸했는데 함씨는 매정하게 거절하였고 원씨는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목욕까지 시켜 주었다. 그랬더니 여인은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으며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하고는 후원에 작은 堂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시면 집안에 영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 말대로 당을 만들어 부처를 모셨더니 뒤에 원씨는 가운이 번창하였고 함씨는 몰락하였다고 한다.<sup>100)</sup>

⑮ 호무골<sup>101)</sup> : 조선 말엽에 한 地師가 이곳에 터를 닦고 집을 지으려다가 물이 없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 이명도란 이가 집을 지으려고 했다. 그 역시 물

92) 『청원지명지』, 399.  
 93) 미원면 大新里와 鍾岩里, 북일면 椒井里 사이의 九女山(484m)에 있는 石築 山城.  
 94) 『청원지명지』, 66.  
 95) 文義面 九龍里.  
 96) 『청원지명지』, 205.  
 97) 청주시 明岩洞.  
 98) 『충북지명지』, 54.  
 99) 청주시 대성동 옛 세광중학교 정문 고개마루.  
 100) 『청주시지』上, 615~616.  
 101) 청주시 용담동, 용정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

이 없어서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밤 근처의 숲 속 바위 위에 범이 나타나서 춤을 추며 숲 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했다. 범이 사라진 뒤에 그곳에 가보니 바위 밑에서 물이 흘러 나와 자갈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 물맛이 좋았다. 그가 그 곳에 집을 짓고 살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설에는 마을 북쪽에 호수가 있다고 해서 호미골(湖美谷), 마을 지세가 호미를 옆으로 놓은 듯 하다 하여 호미골(鋤谷), 마을에 과부가 많이 있어서 호미골(홀어미골)이라는 동네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sup>102)</sup>

⑩ 용박골 : 영운동과 방서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서 동쪽으로 보살사를 향해 약 1km 지점에 용바위가 있다. 이곳 암벽 사이의 동굴 속에서는 옛날 용이 들어가서 도를 닦아 승천하였다고 하여 이곳을 용바위 또는 용물웅덩이라고 한다. 그리고 근처 마을을 용바윗골(용박골)이라고 한다.<sup>103)</sup>

⑪ 몽단이 고개<sup>104)</sup> : 옛날 어느 장군이 말을 타고 오는데 접지고개(비틀고개)에서 말이 밭을 빠였으나 시급하여 그대로 달리다가 이 고개에 이르러 말의 힘이 빠졌다. 장군은 말을 적군에게 줄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말의 목을 베었는데 말의 목이 끊어진 고개라고 해서 몽단이 고개라고 했다.<sup>105)</sup>

⑫ 구중고개<sup>106)</sup> : 옛날에 중이 넘어 다니던 고개라 하여 붙여졌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중엽에 청주에 낙향해서 살던 이참판의 딸이 머슴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되고 말았다. 머슴은 奴主의 分義를 지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달랬으나 막무가내였다. 이에 머슴은 집을 나와서 보살사의 중이 되었다. 그녀는 절까지 쫓아왔다. 머슴은 그녀를 데리고 나와 중고개에 이르러 이루어 질 수 없는 처지를 슬퍼하며 함께 목을 매고 죽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지스님은 참회의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스님들에게 이 고개의 통행을 금했다고 한다.<sup>107)</sup>

⑬ 虎竹里<sup>108)</sup> : 옛날에 대나무가 많고 호랑이가 살았다 하여 ‘범(虎)’과 ‘대(竹)’를 붙여 지어진 이름.<sup>109)</sup>

102) 『청주시지』上, 621.

103) 『청주시지』, 623.

104) 옥산면 國仕里.

105) 『청원지명지』, 360.

106) 용정동과 용담동 사이에 있는 고개, 이정골고개라고도 한다.

107) 『청주시지』上, 625.

108) 옥산면.

109) 『청원지명지』, 355.

⑩ 白足山<sup>110)</sup> : 世祖가 이 산을 지나다가 발을 씻었는데 발이 희어졌다고 해서 명명되었다고 한다.<sup>111)</sup>

⑪ 천비논<sup>112)</sup> : 전주 이씨가 들어 와 살면서 그 이전에 살던 문화 유씨의 비를 들킨 병에다 버렸는데 그 비의 수가 천 개나 되었다고 한다. ‘천 개의 비석을 버린 들킨 병’이라 하여 ‘천비논’이라고 한다.<sup>113)</sup>

⑫ 少魯里<sup>114)</sup> : 조선 세조가 속리산을 다녀서 온양온천으로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글 읽는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듣고 공자의 나라인魯나라와 비슷하다고 하여 小魯라 하였다고 한다.<sup>115)</sup>

‘무심천’의 어원을 중국의 ‘沁川’ 등에 두고자 하는 것<sup>116)</sup>은 문헌에서 전거를 찾고자 한 것이며, 정진원 여인의 변심을 읊은 한 선비의 詩句의 ‘無心’에 유래를 두고자 한 것은 전설에서 유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원조에 관련된 ‘까치내’ 유래담은 문학적으로 扮飾된 전설이라면 까치를 ‘작다’는 의미로 보면 어의적 해석이고 까치가 많이 모여들어서 명명되었다면 사실에 근거를 둔 명명법이다.

‘용갯들’의 전설은 『三國遺事』의 居陁知條<sup>117)</sup>와 「作帝建神話」<sup>118)</sup>에도 삽입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걸출한 성씨의 시조와 신이한 존재인 용의 힘으로 넓고 비옥한 용갯들이 개척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吉夢을 꾸고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해서 ‘迂山’이 ‘花塘’으로 바뀌었고, ‘금돈산’ ‘병마산’은 신라말의 고운 최치원선생의 전설이 附會되었다. ‘상봉고개’ 전설은 延命說話와 결합되어 이인좌의 난으로 일가가 연이어 비운을 만난 해월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온다.

大洪水傳説은 ‘매봉재’ 외에도 ‘시루봉’, ‘삿갓봉’ 등으로 명명된 산봉우리 이름과 결합되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천냥구멍이’, ‘용물구멍이’, ‘구사리’, ‘실바위’, ‘용박골’ 등은 단일한 구조의 단편적인 지명유래 전설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 분포를 가진 대표적인 移住傳説인 ‘長者뭉뚱 전설’의 하나가 ‘장자늪’과 결합되어 있다. 아홉 명의 딸이 한 아들과 힘겨루기를 한 이른바 ‘오늪 힘내기 전설’은 뿌

110) 가덕면 上野里에 있는 해발 412.8m의 산.

111) 『청원지명지』, 21.

112) 옥산면 水落里.

113) 『청원지명지』, 352.

114) 청원군 옥산면.

115) 『청원지명지』, 358.

116) 김진식, 1997. 앞 글, 73~75.

117) 거타지는 서해용왕의 부탁으로 용왕 일가를 해치는 요괴를 활로 쏘아 죽이고 그 보답으로 용녀를 아내로 얻는다.

118) 『高麗史』 「高麗世系」.

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이 부른 비극을 ‘구녀성’ 이름의 유래로 전하고 있다.

‘당고개’ 이야기는 “善人善果 惡人惡果”의 因果應報譚이 불교적 전설로 운색된 것이다. ‘호무골’ 전설에서 범이 수맥을 발견했다면 이는 명지관 이야기와 상통하고, ‘湖美谷’이 와전되었다면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명명이다. 또 ‘鋤谷’에서 유래되었다면 이는 ‘形象’에 해당되고 ‘홀어미골’에서 유래되었다면 이는 ‘음운변천’에 해당한다.

‘몽단이고개’가 ‘목(頸)과 단(斷)’이 결합되어 ‘목단이’였던 것이 ‘몽단이’로 변했다면 ‘음운변천’에 해당되나 이 전설은 야담적 이야기가 중심이어서 ‘야담’으로 분류하였다. ‘구중고개’에서는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 남녀의 悲戀이 지명과 결합되었다.

#### 다. 野史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설을 야사라고 한다.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될 필요는 없지만 蓋然性은 인정되는 전설을 야사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야사와 결부되어 명명된 지명이다.

① 父母山 : 본래는 我養山, 岳陽山, 我彌山이라고 했는데 華遷堂 朴春茂 장군에 의해 부모산으로 改名되었다고 한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박춘무장군이 청주성을 탈환하고 아양산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었다. 왜군은 산을 포위하고 보급을 차단했다. 산중에는 물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화천당도 기진하여 큰 소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다. 이 때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화천당을 독려하고 머리맡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꿈을 깬 화천당이 군사들에게 그 소나무를 뽑으라고 했더니 소나무가 미처 다 뽑히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왜적은 산중에서 수맥을 발견한 것을 알고 포위를 풀고 떠났다. 그리하여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이에 화천당은 목말라 죽어 가는 군사들에게 물을 내린 것은 자식에게 음식을 주고 돌보는 부모와 같다고 하여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는데 이때부터 아양산을 부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sup>119)</sup>

② 弓峴里 : 백제의 津장군이 이곳에서 고구려 군사와 격전을 하다가 패하여 활을 꺾고 모습을 감추었다 하여 명명되었다고 한다.<sup>120)</sup>

③ 몽단이고개<sup>121)</sup> : 병자호란 때 박동명 장군이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 휘하 장수 김득성이 그 유물과 말을 거두어 가지고 혼을 불러 돌아오는데 이 고개에 이르러

119) 『청주지』上, 617~618.

120) 『청원지명지』, 283.

121) 옥산면 國仕里.

훈령의 대답이 이어지고 말의 굵이 붙었으므로 시신을 고개 위에 장사 지내고 말도 죽어서 묻었다고 한다.<sup>122)</sup>

④ 밤고개(방고개·반고개) : 조선 영조때 趙元宜라는 유생이 왕에게 과격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충청도 회인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왕은 호송하는 금부도사에게 유배지에 도착하는 즉시 죄인의 목을 베라는 은밀한 영을 내렸다. 일행은 청주 북쪽의 栗峰院에 도착했는데 역졸이 삶은 밤을 한 바구니 가져와서 그것을 먹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고 날이 저물어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되었다. 이튿날 일행이 고분터(高隱里)에 이르렀을 때 조원익의 귀양을 풀고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어명을 전하는 파발마가 달려왔다. 돌아오는 길에 조원익은 밤을 가져다 준 역졸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만약 역졸이 밤을 가져다주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지 않았을 것이고 赦免을 받기 전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울봉역 밤나무고개는 求命고개라 불리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밤고개 또는 방고개라 불린다.<sup>123)</sup>

⑤ 仁次里<sup>124)</sup> : 仁祖가 1638(16년)에 보은으로 행차하던 도중에 이곳에 假宮을 정하고 쉬어갔다고 하여 仁祖行次를 기리기 위해 仁次里라고 命名했다고 한다.<sup>125)</sup>

박춘무 장군이 神靈의 도움으로 군사들을 먹일 수맥을 발견하였다는 이 전설은 '용갯들' 전설에서 韓蘭이 현몽에 의해 수맥을 발견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고려 태조를 만났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궁현리는 지형이나 형상에 의해 명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몽단이고개 역시 째다는 뜻의 '몽단이'에 역사적 인물의 전설이 부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밤 때문에 애매하게 죽을 뻔했던 사람의 목숨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당시의 세태와 인심이 진하게 배어 나온다. 인조의 행차가 머물던 곳이라 하여 명명되었다는 인차리 지명은 민간어원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라. 史實

실제의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명된 지명을 말한다.

① 쇠내(金川)<sup>126)</sup> : 조선 철종 시대에 한 나그네가 어느 날씨가 더운 날 청주를 지나다가 청주성 남문 밖 합수머리에서 냇물에 발을 담그고 여독을 풀고 있었다. 깜박

122) 『청원지명지』, 360.

123) 『청주시지』上, 616~617.

124) 가덕면.

125) 『청원지명지』, 108.

126) 명암동에서 시작하여 탑동·금천동·석교동·용암동 사이를 흐르는 개울. 금도랑, 쇠내개울, 쇠내라고 부른다.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두 발 사이에 황금색 모래가 모여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금이었다. 그는 한양 가는 것을 그만두고 그곳에 막장을 치고 德大를 구해서 본격적으로 금 채굴 사업을 시작했다. 금은 합수머리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우암산 명암리 방면의 하천을 중심으로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었으며 이 소문이 퍼져서 각지의 금쟁이들이 모여들었다. 지금은 금이 나지 않으나 이 후로 이곳은 쇠내, 또는 금도랑으로 불렸다.<sup>127)</sup>

② 孝村里<sup>128)</sup> : 조선 世祖때 효자 慶延이 이곳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가 지극하여 명명되었음.<sup>129)</sup>

③ 수도고개<sup>130)</sup> : 이전에 수도관이 통과해서 명명됨.<sup>131)</sup>

금이 나는 내라서 '쇠내'가 되고 효자가 난 동네라고 해서 '효촌'이 되었으며 수도관이 통과하는 고개라 해서 '수도고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이 명명의 바탕이 된 것이다.

### 3. 신앙적 전설

#### 가. 豫言

① 무너미(水餘<sup>132)</sup>고개 : 조선 중엽에 고승 정진선사가 불당을 짓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머물며 '물이 넘는 무너미고개'라고 예언하였다고 하여 명명되었다고 한다. 그 예언대로 현재 대청댐의 물이 이곳을 통과하여 청주시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33)</sup>

② 무네미고개<sup>134)</sup> : 청주 무심천이 이 고개를 넘으면 새 세상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sup>135)</sup>

③ 무네미고개<sup>136)</sup> : 미평동의 물이 이 고개를 지나 성화동으로 넘어가면 새 세상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sup>137)</sup>

127) 『청주시지』上, 620.

128) 남일면.

129) 『청원지명지』, 126.

130) 청주시 용암동. 신촌에서 남일면 월오리로 가는 고개.

131) 『충북지명지』, 56.

132) 남일면 남계리.

133) 『청원지명지』, 201.

134) 청주시 聖化洞. 오류골에서 남이면 가마리로 넘어 가는 고개.

135) 『충북지명지』, 60.

136) 청주시 미평동. 미평동에서 모충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137) 『충북지명지』, 58.

④ 杏花落地<sup>138)</sup> : 이곳에 杏花落地의 명당 자리가 있다는 전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sup>139)</sup>

지명과 관련된 예언은 풍수도참사상과 연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에 무너미고개가 광포되어 있는바 대체로 현재는 고개나 언덕이지만 언젠가는 이 고개로 물이 넘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새 세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행화낙지 역시 길지 명당을 염원하는 인간의 소망을 지명에 붙인 것이라고 하겠다.

나. 讖言

① 文陵峰<sup>140)</sup> : 이 문릉봉이 있어서 이 마을에서 문인이 많이 배출된다고 한다.<sup>141)</sup> 風水說에서는 물체 類型의 영향으로 인간의 吉凶·運命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 物體形象이 인생에 吉凶의 영향을 준다는 관념은 원시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민간신앙의 하나인 類物信仰<sup>142)</sup>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원시인은 자연현상을 해석하려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자기와 자기의 주위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sup>142)</sup> 문릉봉 또는 文筆峰이 있어서 글 잘하는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프레이저(J.G.Frazier)의 이른바 同種呪術<sup>143)</sup>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類似는 類似를 낳는다’, 또는 ‘결과는 그 원인을 낳는다’는 사고의 원리를 類感이라고도 한다.

### Ⅲ. 마무리

이상에서 청주·청원의 지명의 유래 전설을 개괄적으로 분류하고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다만 이 지역의 지명에 관련된 유래 전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것을 분류항목에 따라 정리하고 그 분류상의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를 논의하였다.

지명유래 전설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어느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은 드물고 대개 몇 가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유구한 세월

138) 부용면 杏山里.

139) 『청원지명지』, 274.

140) 강내면 蓮亭里.

141) 『청원지명지』, 282.

142) 村山智順, 1990. 앞 책, 184~185. 이 책에서 그는 여러 예화를 들어 유형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43) 장병길 역, 프레이저 원저, 1982. 『황금가지』1권 (삼성출판사) 46.

동안 역사적, 문화적인 공동 운명체적 집단으로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청주·청원의 지명유래 전설을 통하여 추출된 지명유래 전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유래 전설에는 풍수설과 연관된 것이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서도 形局論에 바탕을 둔 것이 많다. 그리고 풍수설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同氣感應, 나아가 吉氣感應思想<sup>144)</sup>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도 많다. 풍수설은 멀리 신라시대부터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신에 깊은 영향을 주며 오늘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지명이 이와 관련되어 명명된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청주의 옛 별명인 舟城은 裨補壓勝의 관념에 의한 것이고 千石谷, 용바위는 絶脈에 연관된 지명이며 노루명당, 帛千洞은 地官과 관련하여 명명되었다.

둘째, 지명 중에는 원명에서 와전된 것이 많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유래담도 바뀌어 지게 된다. 반다리에서 방아다리로 바뀌고 반고개에서 방고개, 밤고개로 와전되면서 그에 따른 전설도 부가되어 지명에 그럴듯한 합리적 근거를 부회시키기도 하였다. 소바위의 형상을 보고 와우산이라고 했던 것을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어서 와우산이라 하였다며 유래담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셋째, 지명유래가 야담, 야사와 관련지어진 것이 많다. 무심천, 피반령, 용갯들, 까치내, 상봉고개, 구중고개 등의 유래담에는 이 지역의 역사가 담겨있고, 지역인의 삶과 염원, 그리고 아쉬움과 한이 배어 있기도 하다.

지명은 인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지명과 관련된 유래 전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주와 자연과 역사와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여러 각도로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44) 村山智順, 1990. 앞 책, 38~39 참조.

【參考文獻】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李重煥, 『擇里志』

忠清北道, 1987. 『忠清北道 地名誌』

清原文化院, 1997. 『清原郡 地名誌』

清州市, 1997. 『清州市誌』上

鄭明基 編, 『韓國文獻說話集成』

『韓氏報應錄(古小說)』

清州市, 1993. 『清州市文獻資料集』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3. 『國語國文學事典』

韓碩洙, 1998. 『崔致遠傳承의 研究』 (계명문화사)

申月均, 1989. 「韓國 風水說話의 構造와 意味分析」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村山智順, 崔吉成 譯, 1990. 『朝鮮의 風水』 (민음사)

崔昌祚, 1990.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張德順 외, 1983.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金眞植, 1997. 「無心川의 語源考察」 『개신어문연구』14 (개신어문학회)

J.G.Frazer, 장병길 譯, 1982. 『황금가지』 (삼성출판사)